

The Media Korea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인도네시아 “트럼프, 신수도 투자 관심 ... 조코위와 만날 것”

‘코로나 0명’ 인도네시아, 자국민에 한국 여행 자제 권고

입국 제한 등 강경 예방 조치할까...한국 교민사회 큰 걱정
일본 NHK “인니 다녀온 60대 확진” ...인니 정부 “정보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4일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에 있거나 여행할 예정인 분은 주의하고,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은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 등 강경한 예방조치에 나설까 걱정하는 상황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입국 제한과 한-인니 항공 노선 운항 중단조치가 있는지 문의가 쏟아졌으나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며 “한국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만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외교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혹시라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사전에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주 7회 매일 운항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회사 자체적으로 운항을 축소할 계획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관련 결정이 있을까 우려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노선은 최근 탑승률이 50% 선으로 급감한 상태다.

교민 정모씨는 “지난 주중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진짜 0명이 맞는지 우려했는데,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도네시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한국의 확진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사회와 주재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제한 조치를 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큰 걱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5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본토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인 무비자 입국·비자발급을 중

단했고, 같은 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과잉반응하지 말라. 인도네시아 투자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대로 시행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23일 “지난 5일부터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총 118명의 외국인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한 지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입국시킬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발리섬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5천여명은 여객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발이 묶였다가 중국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 일부 돌아오고, 나머지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우회 노선을 이용했다.

한국 교민·주재원들은 지금 한국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인도네시아에 한동안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장·방문 계획을 속속 취소 또는 연기했다.

주재원 김모씨는 “다음 주 한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본사에 연락해 취소했다”고, 교민 이모씨도 “3월 초 한국 방문 계획을 7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도 3월에 한국을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현지 축구협회장이 만류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시내 호텔의 한국인 매니저는 “오늘 아침 한국인 출장자들의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3월 자재 대란’을 우려하던 재인니 한국 봉제·전자 제조업체들에 이어 대기업 현지법인, 자영업자들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내외에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0명이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여성

(44)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했고,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인도네시아인 선원 78명 가운데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음에 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더 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5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나머지 자국민 선원들을 전세기나 선박으로 귀환시킬지 결정한다.

일본 NHK 방송은 22일 “지난 15일부터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19일 귀국한 60대 도쿄 거주 남성이 귀국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입원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NHK 방송은 “해당 남성은 앞서 12일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으나 폐렴 진단을 받지 않아 집으로 돌아간 뒤 15일부터 가족 휴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지만,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KOREAN PROMO 2019

MODERN GOLF & COUNTRY CLUB

주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코로나19 우려로 한국발 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요르단 등 6개국은 입국금지...모리셔스 방문객도 입국보류



▲ 문 닫은 이스라엘...되돌아온 여행객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020년 2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 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이 지난 2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을 입국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모리셔스를 겸입하는 마다가스카르주재 대사관에서 모리셔스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마카오와 카타르가 최근 추가됐다.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조코위 “투자 중시해야” ... 정부 관리에 쓴 소리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일에 개최한 국가 투자 조정 회의에서 연설하고 “현재의 세계 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것은 무역보다 투자”라고 강조했다. 21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또한 지금까지 총 약 1,6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잠재 투자가 실현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관리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수출을 늘려 경제를 성장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며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 기회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래라면 실현될 수 있었던 총액 1,600조 루피아에

달하는 투자를 놓친 것에 대해 “1,600조 루피아는 국가 예산 수준의 금액이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708조 루피아의 투자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3%의 실현에 대해서는 “투자조정청(BKPM)이 설정한 투자 목표액에 도달하면 현실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06%로 전년의 6.01%에서 둔화됐다.

국가개발기획부 “자바 외 4개 도시 대도시로 개발할 것”



▲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빠나스, Bappenas)는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 남부 깔리만판 반자르마신,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발리 덴파사르를 대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자바 섬 외의 여러 곳에 핵심 도시를 정비해 국내 전체로 치우침 없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개발 비용은 총 274조

2020~24년의 국가중기개발 계획(RPJMN) 초안에 담았다. 개발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 외에도 민간 투자와 민관협력(PPP) 사업의 틀에서 조달한다. 바빠나스는 마까사르와 수도 자카르타, 동부 자바 수라바야, 서부 자바 반둥, 북부 수마트라 메단, 중부 자바 스마랑 등 총 6개 도시에서 도시철도(MRT) 건설 계획을 가속화

할 방침도 제시했다. 건설 비용은 총 약 156조 1,000억 루피아로 추산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지역별 기여율은 자바 섬이 약 59%로 최대다. 이어 서부 수마트라 섬이 21.79%였으며 동부 깔리만판 섬이 7.95%, 술라웨시 섬이 6.43%, 발리 누사똥가라제도 3.06%, 파푸아 지역이 2.27%순이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를 동부 깔리만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혀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인도네시아 “트럼프, 신수도 투자 관심 ... 조코위와 만날 것”

28일에는 토니 블레어·손정의, 조코위와 신수도 건설 논의



▲ 2017년 G20 행사장서 만난 조코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 관심을 보여 가까운 미래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다.

해양투자조정장관은 25일 “회담이 추진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수도 투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그러한 관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투자를 원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재일교포 3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가 신수도 투자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CNN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신수도 건설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손정의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

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팔리만판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1단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ADSW) 기조연설을 통

해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최고의 기술과 혁신,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초청한다”며 투자의 문을 활짝 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전기가만 다니는 친환경 도시,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300억 달러(36조4천억원)~400억 달러(48조5천억원) 투자 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투자 의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건설업협회, 외국기업과 협력해 수도이전 개발 사업 참여



인도네시아 건설업협회(AKI)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여러 외국 기업과 협력하여 수도 이전 개발 사업에 참여할 목표이다.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 466조 루피아 중 약 81%인 376조 6,000억 루피아를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또는 민간기업과 국영·공영기업 사업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AKI의 조셉 사무국장은 “회원사 대부분이 외국기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수도 관련 대형 사업에 참여할 목표이다”라고 언급했다.

국영 건설 와스끼따 까르야(PT Waskita Karya)의 샤키티

아 수석 부부장(총무부)은 “자회사인 와스끼따 브폰 프리캐스트(PT Waskita Beton Precast)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 아치형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공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도 개발 사업이 향후 몇 년간 국내 건설업계의 실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 466조 루피아 중 19%에 해당하는 89조 루피아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이 밖에 PPP 사업에 253조 4,000억 루피아(54%)를 민간기업과 국영·공영기업의 사업에 123조 2,000억 루피아(27%) 충당할 계획이다.

인니 보건장관

“코로나 확진자 없는 건 기도 덕분” 재차 주장



프라완 아구스 뿌뜨란토(Terawan Agus Putranto)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기도의 중요성을 되풀이해 이목을 끌고 있다.

프라완 장관은 17일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모두 기도의

힘”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하버드 T.H.첸 보건대학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미감지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 초안을 내놓았으며, “지금쯤이면 인도네시아에 확진자가 10명은 발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프라완 장관은 이에 대해 “모욕적”이라며 연구를 부정함과 동시에 “기도가 성공적인 검역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비법이 ‘종교’라는 주장에 전문

의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스, 에볼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수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천만명에 이르고 중국과 교류가 잦았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자 ‘보건 당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능력이 떨어진다’,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프라완 장관은 11일에도 “인증 받은 신종코로나 검사키트가 있다”며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E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SK건설,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와 친환경 아스팔트 개발 추진

인도네시아 아스팔트 수요 · 성장성 커...사업 영역 확장도 기대



▲ SK건설-위카,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개발 협약 체결 [SK건설 제공]

SK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영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SK건설은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건설회사인 ‘위카’ (WIKA)와 친환경 아스팔트 사업을 위한 기술서비스 협약(TSA)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카는 1960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건설기업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인

프라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 제련소, 지역개발, 태양광, 전기 오토바이 등의 투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아스팔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분야 최우선 과제로 도로망 확충을 꼽고 있어 아스팔트 생산·개발은 수요와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SK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

초로 인도네시아 아스팔트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위카 자회사인 ‘위카 비투멘’이 운영 중인 아스팔트 생산 플랜트에 대한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카 비투멘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부폰 섬에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천연 ‘록 아스팔트’를 부가가치가 높은 아스팔트로 전환·생산하는 연산 2천t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카는 이 시설의 최적화한 성능 개선을 통해 향후 대규모 아스팔트 플랜트 투자·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SK건설은 플랜트의 최적 가동과 상용화를 도울 예정이다. SK건설은 상용화 이후에는 위카와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부폰 섬에 연산 70만톤 규모 아스팔트 플랜트의 기본설계

(FEED)와 설계·조달·시공(EPC)도 수행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인도네시아는 매년 약 145만t의 아스팔트를 수입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70만t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로젝트가 상업화에 돌입하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도네시아 내 고용 창출과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SK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오일·가스 분야뿐 아니라 인프라, 발전,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SK건설은 위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진단을 시작으로 예정된 후속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친환경 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폐기물 처리 시설 3개소, 오는 5월 입찰 전망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주영 건설사 주영 자카르타 프로퍼티인도(PT Jakarta Propertindo, 이하 Jakpro □ 작프로)는 주정부가 예정한 3곳의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y, 이하 ITF)의 건설 사업에 대해, 오는 5월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일자 일간 폼빠스에 따르면, 작프로와 자카르타 환경국은 19일 투자자와 은행 관계자 등을 초청한 ITF 건설 사업의 예비 시장 조사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작프로의 사업 개발 담당자는 “자카르타 환경국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4월에 완료되

면 협력 업체의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협력 업체에 자금과 기술, 용지 취득 등으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자카르타 환경국 관계자는 “수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부 자바 주 반폰에 위치한 반파르 그방(Bantar Gebang) 폐기물 처리장이 앞으로 3년 후 한계를 맞는다”며 “따라서 동·서·남부 자카르타에 각각 ITF를 건설하고 하루 총 6,500톤의 쓰레기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2월에 기공식을 가진 북부 자카르타 순프르(Sunter)의 ITF에 대해서는 향후 2년~2년 반 내에 완공을 전망했다. 순프르 ITF의 폐기물 처리 능력은 하루 2,200톤으로, 하루 3만 5,000kW(킬로와트)의 전력을 발전할 계획이지만, 현지에서는 아직 건설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STEPI, 인도네시아와 과기정책 협력의 장 펼쳐



▲ 2020년도 한-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 착수세미나 참석 단체사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항희)은 지난 18~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국 전문가 초청 과학기술정책 강연’에 참여해 ‘2020년도 한·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 착수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전문가 초청 과학기술정책 강연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가 공동 주최했다. 밤방 브로조노고르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 장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임택순 STEPI 개발협력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과거와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 위원은 이 강연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협력방향을 제시

했다. 19일에는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관련 실행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2020년도 한-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 착수세미나가 열렸다. 임 위원이 ‘2020년도의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의 사업계획’ 및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발전 동향’을 발표했다. 이크발 물라나

LIPi 박사가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를, 수에트리 연구기술부 과장이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체계 및 제도 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다. 조항희 원장은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가 인도네시아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발전 및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STEPI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STEPI는 한·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정책 컨설팅 및 실행역량강화를 위해 한·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전자뉴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 내달 미국 방문...국부펀드 체결 논의 기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3월 중 미국을 방문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5년 미국을 방문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첫 방문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루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훗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국부펀드 관련 미국의 대인니 투자가 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이 있었다고 발표,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의 미국연구센터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방문은 시기 적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비즈니스측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팡그랑 리보 까라와치 루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인도네시아, 2020년 인구조사 돌입 ... “한국 따라 하는 것 목표”

온라인 등록 후 나머지 방문 조사...2045년 인구 3억1천900만명

인도네시아 정부가 10년 만의 ‘인구조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따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템포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수아리안토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2020년 인구조사를 시작한다”며 “우리가 언젠가 한국 수준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아리안토 청장은 “한국의 인구 총조사는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어서 정부의 정책 개입을 뒷받침한다.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인구 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실시된 뒤 5년마다 18차례 이뤄졌고, 1960년 제9회 조사부터 주택에 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온라인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고, 2015년 조사부터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전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만 조사하는 ‘등록센서

스’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등 11개 기관, 21종 행정 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대체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한국 처럼 행정자료가 잘 구축되면 전수조사가 필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일간 콤포스가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월 15일~3월 31일 온라인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해당 기간에 인구조사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을 주려 7월 한 달 동안 집마다 방문 조사를 벌인다.



▲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방식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조사 대상 질문은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종교, 교육 수준 등 22개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내부부의 인구 관련 정보도 활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인도네시아 인구가 2019년 2억6천여만명, 2045년에는 3억1천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7월 가정방문 조사를 위해서는 약 39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데이터는 새로운 종류의 재산(wealth)이다. 인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인구 데이터를 얻을 것”이며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

北수마트라 수력 발전소 건설 중단 ... “코로나19로 중국인 입국 못해”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주 남부 타빠눌리(South Tapanuli)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탕 토루(Batang Toru) 수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된 것으

로 나타났다.

19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해당 건설 중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 발전소의 운영 회사, 노스 수마트라 하이드로 에너지(PT North Sumatra Hydro Energy, 이하 NSHE)에 따르면, 당초 건설에 임하고 있던

중국인 근로자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중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멈춰 있었다. 대체 직원으로 중국인 근로자 125명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중국과의 항공편 운항이 정지되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NSHE 관계자는 “현재 공정은 터널 굴착으로, 이 작업은 주로 중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멈춘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 항공 운항 재개 나름이므로, 현재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바탕 토루 수력 발전소의 출력은 51만kW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는 22조 루피아로 2022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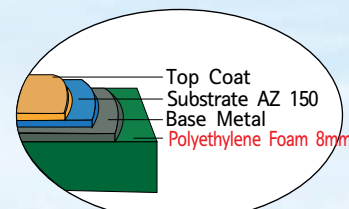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width, 35mm height)
2. 25mm Trimdek (1040mm width, 25mm height)
3. 35mm Spandek (920mm width, 35mm height)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width, 110mm height)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width, 55mm height)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width, 35mm height, 20mm gap)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스타벅스에 비트코인 더하면 글로벌 은행이 탄생한다

30대 직장인 이아무개씨는 스타벅스 카드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사용한다. 특히 줄을 서지 않고도 앱에서 바로 주문과 결제를 하는 사이렌오더 기능을 자주 쓴다. 이씨는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스타벅스를 즐겨 찾는다. 어떤 도시들에서나 그 나

며 “1500만 이상의 스타벅스 리워드 서비스 회원을 가진 모바일 결제 분야 선두 주자로서,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지불 옵션을 넓혀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에스앤피(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2016년 조사를 보면, 스

곳은 총 1조5000억원가량의 선불충전금 잔액을 갖고 있다. 한대훈 에스케이(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전 세계 스타벅스에 예치된 선불충전금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암호화폐를 매개로 호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스타벅스가 금

탁기관 구실 또한 수행하게 된다.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기엔 보안 측면에서도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스럽다. 반면 백트와 같은 플랫폼을 거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암호화폐가 앞단에선 고객 편의를, 뒷단에선 자산 운용 편의를 높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스타벅스는 은행도, 전자지불사업자도 아니기에 지불준비금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용약관상 선불충전금에 대해 고객에게 이자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한대훈 연구위원은 특히 남미와 같이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지역에서 ‘스타벅스 은행’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2018년 10월 아르헨티나 현지 은행 ‘방코 갈리시아’ (Banco Galicia)와 손을 잡고, 스타벅스 은행 지점을 여는 실험에 나섰다. 고객들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스타벅

트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과 로열티 포인트 기반 거래 또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지2솔루션이 이미 확보한 은행·기업과의 협업 관계나 이용자를 백트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백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무궁무진하게 확장 가능하다.

일본 전자상거래 공룡 라쿠텐은 지난해 8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를 일본 엔화로 사고팔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쿠텐월릿’을 출시했다. 엔화뿐 아니라 라쿠텐 포인트로도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라쿠텐에서 소비를 하고 얻은 포인트가 더는 ‘보너스’가 아니라 돈이 된다는 의미다.

국내 결제 서비스 기업 다날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은 최근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쓱(SSG페이)’와 제휴를 맺었다. 이에 따라 쓱페이 앱에서 암호화폐 페이코인을 쓱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쓱머니라는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이마트와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등 신세계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쓱머니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 전통 은행들이 방어할 수 있을까

국내 금융 기업들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색에 적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이런 시도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증권사 서비스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주당 가격이 높은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해, 자투리 투자에 관심 있는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구상이다. 우리은행 또한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갖춘 소매점과 협업해,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환전한 돈을 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따냈다. 하지만 환전 서비스에 필요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현금 수송 등 문제로 서비스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중섭 <비트코인 제국주의> 저자는 이러한 국내 금융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브랜드 파워나 자본력 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7년 6월 스타벅스 상장 25주년을 기념하는 나스닥 전광판의 모습.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해 ‘커피제국’을 일군 스타벅스는 이제 ‘금융제국’으로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다. 스타벅스 제공

라에서만 쓸 수 있는 스타벅스 카드를 구입해 커피를 사 마신 뒤, 카드에 일정 금액을 남겨둔다. 마음에 든 여행지를 다음번에 꼭 다시 찾아, 남은 돈을 쓰겠다 다짐하는 소소한 의식이다. 이씨의 이런 여행지 의식은 수년 안에 그 의미를 잃게 될지 모른다. 스타벅스가 그리는 ‘전세계 대통합’ 그림 때문이다. 현재 스타벅스는 진출 국가마다 멤버십 제도를 따로 운영한다. 국내에서 충전한 원화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미국에서 충전한 달러는 미국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최근 스타벅스가 이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통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글로벌 은행’ 꿈꾸는 스타벅스

2018년 스타벅스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 플랫폼 백트(Bakkt)에 투자했다. 당시 마리아 스미스 스타벅스 파트너십 및 지불 부문 부사장은 “(백트의) 주요 가맹사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미국 달러로 전환해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

타벅스는 2016년 선불카드와 앱으로 미국에서만 1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웬만한 미국 중소 은행 보유 예금과 맞먹는 규모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940억원 규모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는 선불 충전카드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별) 적립과 쿠폰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2011년 9월 첫선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신용카드와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 등 현금 이외 결제 수단만 쓸 수 있는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카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전국 1200여개 매장의 3분의 1가량인 403곳이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엔에이치엔(NHN)페이코 등 국내 간편결제 및 송금 업체 55

종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백트가 뒤통수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매개로 78개국 매장을 통합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국가를 옮겨 다닐 때마다 환전을 하거나 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사용처가 늘수록 중국인 관광객들의 외국 여행이 편리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대규모 선불충전금을 활용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동의 결제 장부 삼아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자금을 한데 모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해 수익을 내거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 등 직접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볼 수 있다. 특히 백트가 현물결제가 아닌 실물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물인수도란 정산 시점이 아닌 거래가 체결되는 시점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오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백트는 거래소 기능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백트’에 투자 비트코인 매개로 글로벌 금융사 도전 이미 남미에서 스타벅스 은행 실험 중 “기술 발달이 업권의 경계 무너뜨려”

스는 은행의 업무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한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폐소 가치가 견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타벅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자국 은행보다 믿음직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 앞세워 금융 넘보는 기업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스타벅스가 더이상 단순한 커피회사가 아니라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라며 “기술의 발달이 업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이 가져다준 편의와 규제 공백을 등에 업은 글로벌 기업과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백트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가 이달 초 미국의 로열티 솔루션 업체 브리지2솔루션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브리지2솔루션이 운영 중인 대형 로열티 포인트 교환 사이트엔 약 6000억달러 규모의 포인트가 예치돼 있다. 애덤 화이트 백트 회장은 지난 달 한 행사에서 소비자용 백



나는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 내가 남보다 특별히 유식해서가 아니다. 본래 성경은 보통 사람을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언제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구약은 최고 3500년 전의 고대 사람들, 신약은 대략 2000년 전의 고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농부, 어부, 양치기, 기생, 목수 등 기껏해야 글자를 겨우 읽을 수준이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웠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 학생이라도 성경을 매우 잘 이해한다. 성경 중의 성경이 모세 오경인데 그들은 그걸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달달 외울 정도다. 그런데 신학자나 목회자 정도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란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책이다.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고 편지란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만일 이해 못할 말을 담은 것이라면 그건 편지가 아니라 암호책이라고 불려야 할 거다. 그래서 이해 못하게 쓴 계시는 이해 못하게 쓴 편지와 같다.

따라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건 오히려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외국인들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어렵다고 말하는 걸 별로 본 기억이 없다. 대부분이 성경을 잘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로마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중학생 시절 처음 교회에 가서 배운 게 로마서였다. 당시 지도 전도사께서 얼마나 쉽게 잘 설명해주시는지 머리 속에 쑥쑥 들어와서 전혀 어려움지 모르고 잘 배웠다.

그 분은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배운 로마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비록 중학생이라도 “의인은 믿음(에무나: 신실, 진실, 성실)으로 말미암아 살리

의 없었다.

성경 주석이나 주해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정도를 제외한다면 다소 지루하거나 따분한 부분은 있어도 어려워서 못 읽을 부분은 거의 없다.

물론 성경 모든 구절이 무조건 다 쉽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곳도 많다. 보다 바른 해석을 위해 전문 신학자가 필

권주의자들의 농간이 있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들은 성경이 어려우니 합부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들 목사에게 의존해서 신앙 생활을 하라고 유도한다.

16세기 종교 개혁의 가장 큰

는 ‘귀’가 되면 옳다고 여겼다.

결국으로는 ‘만인제사장’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지만 실제 그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를 이원화하여 ‘설교를 하는 사람(설교자)’과 ‘설교를 듣는 사람(피설교자)’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현대 교회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고대 문맹 사회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고등 교육을 잘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만 하며 안주하는 중세식 신앙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 이제는 오히려 읽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행하는 총체적 신앙 생활이 비로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다.

아무쪼록 더 이상 성경이 어렵다는 말에 속지 말자. 만일 성경이 어렵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책임이다. 만일 편지가 너무 어려워서 수신자가 이해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편지다.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쉽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당당뉴스

성경은 쉽다 -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라” 여기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나.

그 이후로도 지난 50년 동안 나는 어떤 목사의 설교나 다른 신학자의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적은 거의

없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개는 해석상의 이견이 다양하게 있을 뿐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는 일부 교

실수 중 하나는 자신들의 손으로 안수한 목사를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서 진리를 전하는 ‘입’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단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

‘집안일 관리는 아내 의무’ 인니 가족복원법안 가부장제 논란

가족 생계 책임은 남편 몫으로 규정...성적 일탈 행위도 금지

인도네시아 모든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겠다고 발의된 법안이 집안일 관리를 아내의 의무로 규정하고, 성적 일탈 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5명은 종교적·전통적 가치를 지켜 인도네시아 가정을 부정적인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하며 가족복원법안(RUU Ketahanan Keluarga)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 가운데 3명은 여성이다.

이 법안 25조는 ‘아내는 집안일 관리를 최대한 잘하고, 종교적 규범과 사회윤리, 법령에 근거해 남편과 자녀의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의 복지와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자

신과 가족을 학대, 착취, 성적 일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여성은 “내가 과푸아에서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일을 맡고 있다. 그럼 법을 위반이 되는 것이냐”고 트위터를 통해 성토했다.

또 다른 여성은 “가사 분담, 생계 책임은 부부가 알아서 정할 일이지 국가가 법으로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족복원법안 50조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가족 복원을 위협하는 선전(propaganda)’이라고 규정해 성소수자, 인권 단체로부터 차별적 법안이라는 비판도 받

는다. 이 법안은 나아가 가학증, 피학증 등을 성적 일탈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가족복원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법안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무하지르 에펜디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장관이

[연합뉴스]

브카시 보건 당국, 중국인 근로자들 격리 요청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브카시 보건 당국은 19일 중국인 근로자 14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하도록 고용주인 중국건축공사(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이하 CSCE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일자 현지 매체 펠포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13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문서로 권고했다.

브카시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14일간의 격리 기간 후 검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CSCEC는 브카시 찌까랑의 찌반투(Cibantu) 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현재 48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천만명에 이르고 중국과 교류가 잦았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자 ‘보건 당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능력이 떨어진다’,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니, '코로나 발생' 월드드림호 선원 188명 무인도로 이송

병원선 보내 자카르타 앞바다 작은 섬에 격리 관찰키로 발리섬 체류 중국인 600여명 비자 연장...본국 안 돌아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운항을 중단한 홍콩 크루즈선 '월드드림호'의 자국민 선원 188명을 데려오기 위해 해군 병원선을 보냈다. 25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월드드림호는 1월 19~24일 승객 4천여 명을 태우고 베트남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콩 당국은 이달 5일 대만에서 돌아온 월드드림호를 해상에서 격리하고, 승무원 1천800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 진행 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3천600여명을 9일 하선시켰다. 이후 월드드림호는 운항을 중단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빈판섬 앞 공해에 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선원 188명을 월드드림호에서 병원선에 옮겨 태워 자카르타 앞바다 '천개의 섬' (340여개) 군도에 위치한 스바루섬(Sebaru)으로 데려와 격리 관찰하기로 했다. 스바루섬은 큰 섬과 작은 섬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작은 섬에 선원들이 28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이 섬은 자카르타 북쪽 안쪽 마리나에서 스피드 보트로 3시간 30분 떨어져 있는 무인도이다. 다만, 과거에 마약 중독자 재활 장소로 활용돼 생활 시설이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이달 2일 중국 우한으로 전세기를 보내 데려온 교민 238명과 수송 작전 참여자 등 모두 285명을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남중국해 나뚜나제도에서 14일간 격리했었다.

가치 않고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더 체류하기로 연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5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본토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인 무비자 입국·비자발급을 중단했고, 같은 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사회와 주재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입국 제한 등 조치를 할지 촉구를 끈두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방문했던 일본인 남성, 코로나19에 양성 반응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한 일본인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공영 NHK 방송은 도쿄에 거주하는 60세 남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NHK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인 이 남성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이달 12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폐렴 진단을 받지 않아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성은 2월 15일 가족 휴가를 위해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났으며, 19일에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심각한 호흡 곤란으로 입원해 현재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남성의 정확한 동선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며, 증상이 발현되기 전 14일 내에 중국에 여행 기록이 없다고만 언급했다. 이 남성은 인도네시아 방문 후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두 번째 사례다. 앞서 확인된 한 중국인은 발리에서 돌아온 지 8일 만인 이달 초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인니 항공우주연구소 "현재 우기 절정...주의 기울여야"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연구소(LAPAN)의 토마스 자말루딘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우기의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소장은 "극심한 비는 두 가지 요인, 즉 높은 강우

(降雨)과 오랜 강우가 요인"이라며 "현재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우기의 절정에 이르러 있어 언제든지 비의 강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부터 우기에 접어든 상태로, 우기의 절정은 1월과 2월로 예측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동부 깔리만판주 사마린다에 내린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 7,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현재의 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Info BMKG'를 통해 날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바빔, 중국 공급 중단으로 생산에 영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중국 원료와 자재 공급이 끊겨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주 바빔 공업단지 생산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시작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뽀뽀발 공단은 몇 주 전부터 중국에서 오는 공급 물품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빔인도 공단에 입주할 68개 기업 중 여러 전자기기 공

장이 몇 주 전에 조업을 중단했다. 공단 운영 책임자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절반 가량은 중국에서 원료와 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재고량이 2월말분

밖에 없어 그때까지 조달하지 못하면 조달처를 바꾸거나, 조업을 중단해야 된다. 바빔인도 측은 “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약 70%가 중국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고 있다. 공급 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하면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언급했다.

바빔인도 공단은 1989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양국 정부가 설립했다. 부지 면적은 320헥타르에 달하며, 약 5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1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원자재가 7.35%, 자본재가 5.26% 각각 감소했다.



파이오니어 산업 18개 분야, 투자조정청에서 택스 홀리데이 직접 신청 가능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17일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파이오니어(Pioneer) 산업’ 18개 분야의 택스 홀리데이(법인세 일시 면세 조치)에 대해 재무부를 거치지 않고 투자조정청(BKPM)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상류 비금속, 석유·지열 가스 채굴과 정제, 농림 수산물 유래 유기 화학품 등 18개 산업 분야가 그 대상이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 밖에 투자에 관한 우대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택스 홀리데이는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30%(연간 5%, 최대 6년)를 소득에서 공제 ◇고정·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해외 거주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경



감 세율의 적용 ◇결손금의 이월 기간의 연장(10년까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내년 르박블루스~남부망그랑 MRT라인 착공 추진



▲ 인도네시아 교통부 자카르타대도시권교통국(BPTJ)이 제안한 르박블루스~BSD시티 MRT 노선 계획. [망그랑익스프레스 캡처]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1호선의 출발지인 자카르타 남부 지역의 르박블루스(Lebak Bulus)와 남부망그랑(Tangerang Selatan)의 BSD

시티를 잇는 MRT 1호선 라인 연장노선이 내년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두번째 임기가 끝나

는 아이린 하르미 디아니 반 폰 주 남부망그랑 시장이 르박블루스~BSD시티 노선 MR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아이린 시장은 “MRT 확장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사업(PSN)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만일 이 프로젝트가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에 지방자치시로 출범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알려진 남부망그랑 시는 현대적인 주택단지인 빈파로 자야, BSD시티, 알람수프라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센터 등 첨단기술단지로 발전하고 있다.

아이린 시장은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이미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교통부 자카르타대도시권교통국(BPTJ)에 전달했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 노선은 MRT 첫 번째 역인

남부자카르타 르박블루스에서 확장된다. MRT 1호선 차량 기지이며 르박블루스 역에서 남부망그랑 BSD시티 인근 라와분투 지구까지 연장 27km이며, 짜뿌팟, 빠물랑 및 연구기술센터(Puspitek)를 지나게 된다.

라와분투 지구는 5개 통근열차 노선의 역 가운데 하나이며 2개 고속도로와 버스웨이를 연결하는 연계버스노선이 있다.

아이린 시장은 “우리는 자카르타와 반폰 등 2개 주를 연결하는 만큼 가장 적합하고 각 지역의 규모 등에 비중을 둘 것”이라며 “남부망그랑의 인구 160만명 가운데 50% 가량이 자카르타에 직장이 있다”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의 큰 장애물은 대규모 자금이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교통부장관은 남부망그랑 MRT 사업을 자카르타대도시권 교통종합계획(Greater Jakarta Transportation Master Plan)에 포함시켰지만 km당 1조 루피아가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남부망그랑 시에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방식 등을 모색할 것을 독려했다. 빨라나 프라베스티 교통부 BPTJ 국장은 자카르타와 남부자카르타 연결하는 MRT 연장선은 잠재적 수요와 수익이 충분하다며, 2021년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빨라나 국장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합의점에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외교부, 발리에 분관 만들고 유라시아·아프리카 담당 조직 확대

직제 개정해 81명 증원... 재외국민 보호·외교 다변화 강화



▲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가 인기 관광지인 발리에 분관을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직을 확대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과 외교

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지역국 2개 과(課)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인력은 총 81명이다.

우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365일 24시간 책임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담당 인력을 28명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5개의 ‘1인 공관’에 영사 5명 등 현장인

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한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분관을 신설한다.

발리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자카르타에서 1천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그간 영사조력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외교부는 신남방 정책 지원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경제적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과

도 각각 2개로 확대한다.

유라시아 1과는 러시아 업무를 전담하고, 신설되는 유라시아 2과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여타 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를 총괄한다.

러시아 전담과가 생긴 것은 1990년 한러 수교 이래 처음이다.

아프리카 1과는 남동부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2과는 중서부 아프리카·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연합뉴스]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Ziyakab Koroa19 Jnda Chuanbyan

No	Name of Hospitals	Address	Contact (Telp)
NAD			
1	RSU Dr. Zainoel Abidin Banda Aceh	Jl. Tgk. Daud Beureuh No. 108, Banda Aceh	0651 22077, 0651 28148
2	RSU Cut Meutia Lhokseumawe	Jl. Banda Aceh Medan KM 5 Buket Rata, Lhokseumawe	0645 43012
North Sumatera			
3	RSU H. Adam Malik Medan	Jl. Bunga Lau No. 17	061 836 0381 Fax: 061 836 0255
4	RSU Kabanjahe	Jl. KS Ketaren 8, Kabanjahe	0625 20550
5	RSU Pematang Siantar	Jl. Sutomo No. 230, Pematang Siantar	0634 21780
6	RSU Tarutung	Jl. Bin Harun Said Tarutung	0633 21303
7	RSU Padang Sidempuan	Jl. Dr. FL Tobing, Padang Sidempuan	0634 21780 Fax: 0634 21251
West Sumatera			
8	RSU Dr. M. Jamil Padang	Jl. Perintis Kemerdekaan, Padang	0751 32372
9	RSU Dr. Achmad Mochtar	Jl. Dr. A. Rivai, Bukittinggi	0752 21720
Riau			
10	RSU Arifin Ahmad Pekanbaru	Jl. Diponegoro No. 2, Pekanbaru	0761 21618
11	RSU Kab. Karimun	Jl. Poros No. 1, Tj. Balai Karimun	Fax: 29611
12	RSU Tanjung Pinang	Jl. Sudirman No. 795, Tanjung Pinang	0771 21163
13	RSU Puri Husada	Jl. Veteran No. 52, Hilir Tembilahan	0768 22118
14	RSU Dumai	Jl. Tanjung Jati No. 4, Dumai	0762 38368
Riau Islands (Kepri)			
15	RS Otorita Batam	Jl. Dr. Ciptomangunkusumo, Sekupang Batam	0778 322121
Jambi			
16	RSU Raden Mattaher Jambi	Jl. Letjen. Soeprapto No. 31, Telanaipura, Jambi	0741 61692
South Sumatera			
17	RSU Dr. M. Hoesin Palembang	Jl. Jend. Soedirman, Palembang 30126	0711 354088
18	RSU Lubuk Linggau	Jl. Yos Sudarso, Lubuk Linggau	0733 321013
19	RSU Kayu Agung	Jl. Raya Lintas Timur Kec. Kota Kayuagung	0712 323889
20	RSD Kab. Lahat	Jl. Mayor Ruslan I No. 28, Lahat	0731 321785
Bangka Belitung			
21	RSU Tanjung Pandan	Jl. Melati Tanjung Pandan	0719 21071 Fax: 0719 22190
22	RSU Pangkal Pinang	Jl. M. Syafrie Rachman I	0717 421324
Bengkulu			
23	RSU Dr. M. Yunus Bengkulu	Jl. Bhayangkara Sidomulyo, Bengkulu	0736 52004/52008
24	RSU Arga Makmur	Jl. Siti Khadijah, Arga Makmur, Bengkulu Utara	0737 521118
25	RSU Manna	Jl. Fatmawati Soekarno 31, Manna	0739 21118
Lampung			
26	RSU Abdoel Moeloek	Jl. Dr. Rivai No. 6, Tj. Karang, Lampung 35112	0721 703312
27	RSU Kalianda	Jl. Lettu Rohani No. 14B, Kalianda	0727 322160
28	RSU Mayjend HM Ryacudu	Jl. Jend. Sudirman No. 2, Kotabumi	0724 22095
29	RSU Ahmad Yani	Jl. Jend. A. Yani, Metro	0725 41820
DKI Jakarta			
30	RSPI Dr. Sulianti Saroso	Jl. Baru Sunter Permai Raya, Jakarta 14340	021 6506559, Fax: 021 6401411
31	RSU Persahabatan	Jl. Persahabatan Raya	021 489 1708
32	RSPAD Gatot Soebroto	Jl. Dr.A. Rahman Saleh No. 24, Jakpus	021 371008
West Java			
33	RSU Dr. Hasan Sadikin Bandung	Jl. Pasteur No. 38, Bandung	022 2551111
34	RSU Dr. Slamet Garut	Jl. Rumah Sakit No. 10, Garut	0262 232720
35	RSU Gunung Jati Cirebon	JL. Kosamabi No. 56, Cirebon	0231 206330
36	RSTP Dr. H.A. Rotinsulu Bandung	Jl. Bukit Jarian No. 40, Bandung	022 231427
37	RSU R. Syamsudin SH Sukabumi	Jl. Rumah Sakit No. 1 K, Sukabumi	0266 225180
38	RSU Indramayu	Jl. Rumah Sakit No. 1 K, Indramayu	0234 272655
39	RSU Subang	Jl. Brigjen Kalamso No. 37, Subang	0260 411421
Banten			
40	RSU Serang	Jl. Rumah Sakit No. 1, Serang	0254 208833
41	RSU Tangerang	Jl. Ahmad Yani No.9, Tangerang	021 5523507, Fax: 021 5527104
Central Java			
42	RSU Dr. Kariadi Semarang	Jl. Dr.Sutomo No. 16, Semarang	024 8413993; 024 841 3476
43	RSU Dr. H. Soewondo	Jl. Laut 21, Kendal	0294 381433
44	RSU Dr. Moewardi	Jl. Kol. Sutarto 132, Surakarta	0271 634634
45	RSU Banyumas	Jl. Rumah Sakit No. 1, Banyumas	0281 796031
46	RSU Kudus	Jl. Dr. Lukmonohadi No. 19, Kudus	0291 431 831
47	RSU Dr. H. RM. Soeselo W	Jl. Dr. Sutomo No. 63, Slawi	0283 491016
48	RSU Pekalongan	Jl. Veteran 31, Pekalongan	0285 421621
49	RSU Tidar	Jl. Tidar No. 30A, Magelang	0293 362260
50	RSU Prof. Dr. Margono Soekarjo	Jl. Dr. Gumbreg No. 1, Purwokerto	0281 632708

51	RSU Dr. Suraji Tirtonegoro	Jl. Dr. Soeradji T. No. 1, Klaten	0272 367381
DI Yogyakarta			
52	RSU Dr. Sardjito	Jl. Kesehatan 1 Sekip, Jogjakarta	0274 631190
53	RSU Panembahan Senopati Bantul	Jl. Dr. Wahidin SH Bantul	0274 367381
East Java			
54	RSU Dr. Soepomo	Jl. Prof. Dr. Moestop No. 6-8, Surabaya	031 5501078
55	RSU Dr. Saiful Anwar	Jl. Jaksa Agung Suprpto No. 2, Malang	0341 362101
56	RSU Dr. Soebandi	Jl. Dr. Soebandi No. 1, Jember 68111	0823 0159 8557
57	RS Dr. R. Koesma Tuban	Jl. Dr. WS Husodo, Tuban	0356 321010
58	RS Dr. S Djatikoesoemo	Jl. Dr. Wahidin 36, Bojonegoro	0353 881193
59	RS Pare	Jl. Pahlawan Kusuma B 1, Pare	0354 391718
60	RS Blambangan	Jl. Istiqloh No. 49, Banyuwangi	0333 421118
61	RS Dr. Soedono	Jl. Sumbawa No. 6, Madiun	0351 454 657
Bali			
62	RSU Sanglah	Jl. Diponegoro Denpasar, Bali	0361 227912
63	RSU Tabanan	Jl. Pahlawan No. 14, Tabanan	0361 811027
64	RSU Sanjiwani Gianyar	Jl. Ciung Wenara No. 2, Gianyar	0361 943020
West Nusa Tenggara			
65	RSU Mataram	Jl. Pejanggih 6, Mataram	0370 623876
66	RSU Raba	Jl. Langsat No. 1 Raba, Kab. Bima	0374 43142
67	RSU Dr. R. Sudjono	Jl. Prof M. Yamin SH No. 55, Selong	0376 21118
68	RSU Praya	Jl. Basuki Rahmat No. 11, Praya	0370 654007
East Nusa Tenggara			
69	RSU Prof. Dr. WZ Johannes	Jl. Dr. Moch. Hatta No. 19, Kupang	0380 832892
70	RSU Dr. TC Hillers	Jl. Kesehatan, Maumerere	0382 21617
West Kalimantan			
71	RSU Dr. Sudarso	Jl. Adi Sucipto, Pontianak	0561 732077 Fax: 0561 732077
72	RSU Dr. Abdul Aziz	Jl. Dr. Soetomo No. 28, Singkawang	0562 631748
73	RSU Sintang	Jl. Pattimura, Sintang	0565 212002 0565 22022
Central Kalimantan			
74	RSU Dr.Doris Sylvanus	Jl. Tambun Bungai No. 4, Palangkaraya	0536 21717 Fax: 0536 29194
75	RSU Dr. Murjani Sampit	Jl. H M Arsyad No. 65, Sampit	0531 21010
South Kalimantan			
76	RSU Ulin	Jl. Jend. A. Yani 79, Banjarmasin	0511 3252229 Fax: 0511 252229
77	RSU H. Boejasin Pelaihari	Jl. A. Syahrani Pelaihari	0512 21082
East Kalimantan			
78	RSU Tarakan	Jl. Merapi I Tarakan	0551 21720; Fax: 0551 51116
79	RSU Dr. Kanujoso Djatiwibowo	Jl. MT Haryono Ring Road, Balikpapan	0542 873901
80	RSU HA Wahab Sjahranie	Jl. Dr. Soetomo, Samarinda	0541 738118
81	RSU Kota Bontang	Jl. A. Yani RT 11, Bontang	0548 21256
82	RSU Panglima Sebaya	Jl. Ciptomangunkusimo No. 2 T, Grogot 21118	0543 21363
83	RSU Tanjung Selor	Jl. Cendrawasih, Tanjung Selor	0552 21292
North Sulawesi			
84	RSU Prof. DR. RD. Kandou	Jl. Raya Tanawangko	0431 853191; 0431 853193
85	RSU Dr. Sam Ratulangi	Luaan Tondano, Minahasa	0431 321171
Gorontalo			
86	RSU Prof. Dr.H. Aloei Saboe	Jl. S. Batutihe No. 7, Gorontalo	0435 821019; Fax: 0435 821019
Central Sulawesi			
87	RSU Undata	Jl. Dr. Suharso 14, Palu 94111	0451 490 8020
88	RSU Luwuk	Jl. Imam Bonjol No. 14, Luwuk	0461 21820
89	RS Mokopido Toli Toli	Jl. Lanoni Toli-Toli	0453 21300
90	RSU Kolonedale	Jl. W. Monginsidi 2, Kolonedale	0465 21010
South Sulawesi			
91	RSU Dr. Wahidin Sudirohusodo	Jl. Perintis Kemerdekaan KM 11, Makassar 90245	0411 510675; Fax: 0411 510676
92	RSU Andi Makkasau	Jl. Nurussamawati 3, Pare Pare	0852 9978 7999
93	RSU Lakipadada Tana Toraja	Jl. Pongliku Mandetek, Tana Toraja	0432 22264
94	RS Islam Faisal	Jl. AP Pettarani Makassar	0411 871942
95	RS Akademis Jaury	Jl. Bulusaraung No. 57, Makassar	0411 317343
96	RSU Sinjai	Jl. Jend. Sudirman No. 47, Sinjai	0482 21132
South East Sulawesi			
97	RSU Kendari	Jl. Dr. Sam Ratulangi No. 151, Kendari	0822 9253 6768
Maluku			
98	RSU Dr. M. Haulussy Ambon	Jl. Dr. Kayadoe, Ambon 97116	0911 343002
North Maluku			
99	RSU Chasan Basoeri Ternate	Jl. Tanah Tinggi, Ternate	0921 21281 Fax: 0921 21777
Papua			
100	RSU Jayapura	Jl. Kesehatan I Dok II, Jayapura 99112	0967 533616 0967 533781

인니, 코로나 환자 0명이라지만 ... 한국국제학교 10일까지 휴업

보건당국 “日감염자, COVID-19 아닌 SARS-CoV-2” 설명에 혼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지만, 발리에 다녀간 중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자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구심이 커졌다.

특히 보건 당국자가 “COVID-19와 SARS-CoV-2는 다르다”고 설명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26일 폼빠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NHK 방송은 앞서 “지난 15일부터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19일 돌아온 60대 도쿄 거주 남성이 귀국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입원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아흐마드 유리안또 인도네시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장은 “발리에 다녀간 해당 일본



인은 ‘SARS-CoV-2’에 감염됐다. 이 바이러스는 ‘COVID-19’와 다르다”며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라고 규정했고,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이름을 ‘SARS-CoV-2’라고 정했다.

본래 질병과 바이러스의 이름이 다르다. 가령,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이다.

현지 기자들이 ‘왜 WHO

와 다른 설명을 하느냐’고 재차 묻자 유리안또 본부장은 “COVID-19와 SARS-CoV-2는 다르고, 차이점이 7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만 답했다.

발리 보건당국은 일본 남성이 휴가 기간에 한 호텔에만 머물렀다며 역학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2일~28일 발리를 다녀간 중국인이 2월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발리 보건당국은 “중국에 돌아간 뒤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역학조사 결과 다른 감염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리섬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격리된 사람은 28명이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7

천만명에 이르고, 중국과 교류가 잦음에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 ‘바이러스 검사 능력이 떨어진다’,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국제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5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본토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인 무비자 입국·비자발급을 중단했고, 같은 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재인니 한국 교민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릴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만 권고한 상태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3월 2일부터 10일까지 휴업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JIKS 재학생 64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이달 3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왔다.

김윤기 교장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 3월 2일 개학을 하되, 그날부터 바로 휴업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결정했다”며 “전체 학생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한국·일본·중국 등을 방문한 경우 14일 뒤에 등교하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제학교들도 “재학생이나 가족 중 대구에 다녀온 지 14일이 안 지난 사람이 있다면 즉시 학교에 연락 달라. 한국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다면 14일이 지난 뒤에 학생을 등교시켜 달라”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코로나19 관련 동포 안내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25일 한인 동포안내문 공지했다.

한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동포사회의 감염자 발생 대비 및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동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개인위생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준수하고, 전염 가능성이 있는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2주 이내 코로나19 위험국가나 지역에 방문자, 특히 한국 방문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다녀온 자, 현

재 코로나19 위험증상(기침, 가래, 목아픔, 37.5도 이상 발열 등) 이 나타날 시 스스로 2주간 외출, 접촉을 자제하며 최대한의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9일 롯데에 비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 101주년 삼일절 기념식, 한국자유총연맹인니지부 이,취임식 및 민주평통 통일강연회’ 행사가 주관 한인단체의 신중한 협의 끝에 전격 취소되었음을 알렸다.

- 예방 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수시로 손을 자주 씻고(비누 사용,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30초 이상), 기침을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와 세정제를 사용해야 함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 얼굴에 완전히 밀착해야 하고, 마스크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얼굴을 굽지 않으며, 한 번 쓰으면 버릴 때까지 탈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
- 마스크를 벗을 때 마스크 앞면은 오염되었으므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끈을 잡아서 벗고, 다른 사람 손에 안 닿게 버려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자카르타지역 지정 병원

- RSPi Dr. Sulianti Saroso(북부 자카르타), 021-650-6559
 - RSU Persahabatan(동부자카르타), 021-2247-2222
 - RSPAD Gatot Subroto(중앙 자카르타), 021-344-1008
- 문의사항은,
 ○ 대사관 당직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62-811-852-446
 ○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62-21-2967-2580
 ○ 한인회 사무국(근무시간 중): +62-21-521-2515
 ○ 한인회 비상연락: +62-812-1960-308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